

초록우산 어린이재단 · 광주일보사
아동학대 예방캠페인



무관심, 아동학대의 다른 이름입니다.

국민소득 이만불시대,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120만명의 빈곤 아동이 있으며, 이 중 결식아동은 45만명 입니다.

-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했던 통영 한XX 양 사건. 이 사건에도 오래된 빈곤과 방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.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및 범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입니다.
-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, 위험한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'힘키우기 교육(CAP, No-Bullying)'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 - CAP(아동폭력예방)교육에서는 또래간 괴롭힘, 낯선사람에 의한 유괴, 아는어른에 의한 성폭력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 보여주며, 이러한 폭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교육합니다.
 - NO-Bullying(학교폭력예방)교육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 키우기, 목격자 역할의 중요성, 자신감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.



초록우산 어린이재단
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



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
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작은 발걸음,
그 걸음에 당신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.

“우리의 밝은 미래,
그 시작은 어린이를 향한
관심과 나눔으로부터”

후원문의 및 아동학대

상담전화: 1577-1391

일시후원 입금계좌 : 105739-64-766433(농협)

*모인 후원금은 광주지역의 빈곤아동지원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.
*광주지역 빈곤 아동 수 : 17,827명 / 광주지역 학대피해 아동 수 : 134명(2011년 기준)